



전주대, 모악산서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 사회봉사센터는 지난 14일 모악산 일대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건조한 가을철을 맞아 증가하는 산불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등산객과 시민들에게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전주대는 산불 예방 수칙 안내, 산불 피해 사진전시, 참여형 게임·퀴즈 미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냈다. 캠페인에는 전주대 학생봉사단은 물론 등산객과 지역 주민도 함께하며 산불예방 메시지를 공유했다. 특히 지역사회의 안전의식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대학이 지역사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협력적 모델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도소, 전주대 법학과 학생 참관 시행

전주교도소(소장 윤순풍)는 18일 전주대학교 법학과 양광해 교수 등 33명이 방문하여 교정시설 참관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날 참관은 법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교정현장 체험을 통해 수용자 처우 및 인권보호 프로그램 등 선진 교정행정을 이해하는데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전주대학교 양광해 교수는 "이번 참관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교정공무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다양한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등을 접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미래 법조인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교정행정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윤순풍 소장은 "전주대학교 학생들이 이번 참관을 통해 선진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되는 좋은 시간을 보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참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교정행정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구천동농협,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개최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은 18일 원로조합원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구천동농협 임직원, 농가주부회원 등 20여명이 참여해 정성껏 담은 김장김치를 원로조합원 60가구에 전달했다. 우리농산물 소비촉진 및 나눔문화의 확산을 위해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은 이번 행사를 준비하였다. 김장김치 10kg을 받으신 원로조합원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성곤 조합장은 "농심전심 마음으로 준비한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되새기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눌 수 있어 뜻 깊었다"며, "앞으로도 구천동농협은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농협이 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 교월동베이비캐슬어린이집,이웃돕기성금기탁

김제시 교월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7일 베이비캐슬 어린이집(원장 송수경)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58만3,000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어린이집에서 운영한 '넋밭 가꾸기' 프로그램을 통해 마련됐다. 아이들이 직접 심고 정성껏 가꿔 수확한 고구마를 어린이집 운동회에서 학부모들에게 판매하여 해당 수익금 전액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아이들이 몇 달 동안 고사리손으로 정성 들여 키운 고구마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아우리(OU:RE)’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서 대상 영예

전북 레드콘 음악창작소 지원 뮤지션 '성과' … 음반제작·공연·멘토링 등 창작 전 주기 지원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7일 전북 레드콘 음악창작소 지원 뮤지션 '아우리(OU:RE)'가 제36회 CJ와 함께하는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며 지역 창작 음악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렸다고 밝혔다. 유재하 음악경연대회는 고(故) 유재하의 음악적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열리는 국내 최고 권위의 창작 음악 경연대회로, 참신한 음악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신예에 심어송라이터를 꾸준히 발굴해왔다. 올해 대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785팀이 지원했으며, 1차 온라인 심사와 2차 실연 심사를 거쳐 최종 10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은 11월 15일 서울 관악아트홀에서 진행됐으며, △아우리(OU:RE) △나이트 오브 라이프타임 △누에 △브라레안 △순다연 △언오피셜 △이예신 △전유동 △전호권 △프리즈 등 각 팀의 개성이 돋보이는 무대가 펼쳐졌다. 대상을 받은 아우리(김승재·고은혁·이종민·이종원·홍대희)의 보컬 김승재는 "대상에 호명됐을 때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어떤 대회에서도 대상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정말 기쁘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꼭 참고 있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총 10팀 수상자에게는 대상 500만 원, 금상 250만 원, 은상 200만 원 등 총 2,200만 원 규모의 장학금이 수여되며, '36기 유재하 동문 기념앨범' 제작 및 발매 지원과 기념 공연도 예정돼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는 (재)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과 함께 레드콘 음악창작소를 중심으로 지역 음악인의 창작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음반 및 영상콘텐츠 제작, 공연 및 쇼케이스 지원, 멘토링과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창작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창작 공간과 장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녹음과 연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내 뮤지션들이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음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농협, 스쿨팜 김장 체험… ‘우리 맛·문화’ 교육의 장 마련

도시 속 아이들이 직접 기른 배추와 무로 한국 전통음식의 정수를 체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북농협이 운영하는 스쿨팜 김장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우리 맛'과 농업의 소중한 의미를 몸소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농협은 18일 전주시 효자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내 텃밭에서 재배한 배추와 무를 수확해 절인 배추에 속을 버무리는 김장 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직접 가꾼 농작물로 김치를 만드는 과정에서 전통 식문화의 가치와 먹거리의 중요성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김장 체험은 올해 스쿨팜 사업의 마무리 단계로, 전주·익산·군산 지역 12개 학교 5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스쿨팜은 도시와 농촌을 잇는 대표적인 도농교류 프로그램으로, 전북농협의 특색사업으로 꼽힌다. 2013년 시작된 이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전



주·익산·군산시의 협력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도내 30개 초등학교 2,0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앞으로도 미래 세대가 우리 농업의 가치와 농산물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배울 기회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비전대, 전북권 대학들과 ‘어쩌다 농촌생활’ 진행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지난 15~16일 이틀간 진안군 미령면 강정리 일대에서 전북권 대학 연합 농촌봉사 프로젝트 '어쩌다 농촌생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전주비전대학교 새싹 새마을동아리가 주관하고 전주새마을회·완주새마을회·익산새마을회·비전대 교학취임처가 후원했으며, 전주비전대를 포함해 원광대, 우석대, 기전대 새마을동아리 학생 등 약 30명이 참여했다. 이는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인력 부족 해소를 돕기 위해 고추대 뿌기 등 수확기 농작업 지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학생들은 마을회관에서 지역 주민과 교류하며 농촌의 현실을 직접 체험했고, 조별 협업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협동심을 다졌다. 전주비전대 새싹 새마을동아리는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한 봉사를 넘어, 지역사회와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전북권 청년 상생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전반을 기획·운영했다.

전주학생교육문화관, 고3 학생 대상 문화예술공연

전주학생교육문화관(관장 김형대)은 18~19일 이틀간 전주·완주지역 고3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공연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험생활 스트레스 해소 및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장으로, 전북사대부고 등 7개교 1,600여 명의 학생이 관람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조선세프 한상궁이 전주비빔밥 재료들과 흥겹게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맛의 가치



특히 이번 연합 봉사활동은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현대적으로 실천하는 데 의미가 크다. 학생들은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몸소 경험하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을 키웠고, 청년세대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장은성 기자



와 의미를 찾아가는 내용으로, 우리 고장 문화유산을 무대 예술을 통해 새롭게 체험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나경균 새만금공사 사장, 군산대서 특강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 나경균 사장은 지난 17일 '전북특별자치도와 미래 천년을 준비하는 새만금'을 주제로 군산대 최고경영관리자과정 특강을 진행하였다. 앞서 작년에도 특강을 진행했던 나경균 사장은 이번 2025년도 과정의 새로운 수강생들에게 각종 통계자료와 챗GPT를 활용한 전북특별자치도 및 새만금 분석을 시작으로 새만금 사업과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소개, 그리고 향후 새만금과 전북의 발전방향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특강에 참석한 지역 경제인들의 수변도시 투자유치, 미래 새만금 사업의 개발 방향 등 다양한 질의에 대한 설명도 진행하였으며, 특히 곧 시작되는 수변도시 첫 분양에 대한 많은 질문에 직접 답하며 참석자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나 사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의 발전을 위한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하며, "올해 수변도시 첫 분양을 시작으로 앞으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전북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춘향장학재단, '남원의 별' 특별장학금 수여식 개최

춘향장학재단(이사장 최경식)은 11월 17일 2025년 남원의 별 특별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특별장학금은 예체능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학생들에게 수여되는 장학금으로, 남원 청소년들의 꿈과 재능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21명의 학생에게 약 1억 2천만원을 지원했으며, 재단이 추진하는 장학사업 가운데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주요 사업 중 하나이다. 올해는 체육과 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룬 지역 인재 총 16명(체육 13명, 예술 3명)을 '남원의 별' 특별장학생으로 선발하였다. 특히,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학 중인 정진세(2025년 베를린 탄츠 올림프 수상)를 비롯해 전국체전·전국소년체전 수상자 등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남원시의 명예를 빛낸 학생들이 선정되었다. 최경식 이사장은 수여식에서 "남원의 별은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미래의 희망을 상징하는 상이라며,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빛나는 인재로 성장해 남원의 이름을 널리 알리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광활농협, 김장 나눔 행사로 이웃에 따뜻함 전달

광활농협은 최근, '나눔으로 따뜻한 겨울을 함께 합니다'라는 취지 아래 광활농협 임직원 그리고 농가주부모임 회원들과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김장 담고 마음 담아 사랑을 전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배추 800포기를 정성과 마음을 담아 어르신들 가정에 방문하여 전달하며 따뜻한 사랑의 온정을 나눴다. 광활농협 임영용 조합장은 점점 노령화되고 혼자 계시는 지역 어르신들이 늘어남에 추위지는 날씨에 김장을 하고 사랑을 나눔으로서 온기를 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기원했다. 더불어 뜻깊은 행사에 함께 참여해주신 광활농협 임직원과 농주모 회원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성주 김제시장과 김유현 농협 김제시지부장, 광활농협 임원들도 참석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부량면, 청소년 보호 캠페인 실시

김제시 부량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7일 청소년 선도위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함께 벽골제 일원에서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활동은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관내 관광지와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하고, 식당과 편의점 등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류 및 담배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